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삶

— 2004년 신지식인 선정,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송경태 관장 —

취재사진 : 박지혜 _ 사회복지사, 월간 Social Worker 객원기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1만 2천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오늘도 도서관을 통해 세상과 접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2000년 10월에 개설되어 점자도서, 녹음도서를 꾸준히 제작하여 문화 복지 총족을 시키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2001년 4월 25일에 개설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기타 장애인들 에게 음성인터넷도서관을 제공되고 있는데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측은 이렇게라도 쉽게 접근하여 그분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

특히, 전북장애인신문(주간지)은 3년째 전북 도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도 나와 같은 똑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매서운 추위지만 필자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따뜻함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하루,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송경태 관장을 만나보았다.

군대시절 실명하여 시각장애인의 삶 살아 남다른 강한 의지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송경태 관장은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뒤지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발로 뛰는 이 시대의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이다. 송 관장은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넷도서관인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을 개설하여 2004년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장애인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나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 것뿐인데, 이러한 영광을 얻은 것 같아 쑥스럽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겠습니다."라며 간단한 소감을 말하였다.

송경태 관장님은 군대시절 수류탄 폭발로 인해 두 눈을 실명해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였는데 사고이후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끝에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학을 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문자를 보지 못해 겪는 한계와 불편함을 몸소 느끼며, 문자 음성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인생은 열심히 긍정적, 적극적인 삶 강조

송 관장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면서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람 즉, 목적을 세웠으면 시도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이야기 도중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서울에서 무보수로 시작하여 시설을 건립, 운영 등 많은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도서관도 필요성이 있어 만들었지만 공무원들이나 비장애인들은 필요성을 이해 하지 못

해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점자도서관, 녹음도서관을 보더라도 책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이용하다보니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이게 되었구요."

운영비가 필요 한데 인건비 지원과 후원이 거의 없어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는 송 관장.

민간단체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장애인들도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회복지 일을 해 오셨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다양한 문화체험 미국대륙과 백두산, 한라산등을 통해 장애극복 의지 보여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나 도서관을 통해 점자를 알고, 녹음 도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시켜 주었다며 감사의 전화를 받을 때가 기억난다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체험(고적탐방, 등반대회, 영화감상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해주어 문화 복지를 충족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또한, 맹인 대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비장애인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해줄때....정말 이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반인들도 힘들다는 백두산과 한라산 등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사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저도 사회와 이웃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 하였는데, 2002년 월드컵이 전주에서도 열린다는 것을 99년 미국 횡단을 할 때 알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 하여 도보 횡단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남북통일의 영원을 담아 백두산과 한라산 등정을 하게 되었죠.”

물론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끝날 때에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성취감과 미국대륙을 할 때에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과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극복했다는 뿌듯함과 내 인생에 있어 모진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심어졌다고 한다.

대학원에서 교수로써 열정적인 강의 장애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만들고 파

대학원에서 자원봉사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 송관장.

처음에 학생들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의구심도 많이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접목시킬 수 있어 좋았으며, 강의 시간 내내 딴 짓을 할 것 같은데도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집중력이 대단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점을 이야기하며 장애인들도 권리를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회에 요구하고 이야기해야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활, 자립을 해야 하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비장애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어려운 장애의 난관을 꼭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다.

본인도 장애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도내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송경태 관장은 앞으로도 할일이 많다고 한다.


그중 제일 먼저 장애어르신들을 위한 일인데, 나이가 많은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갈 곳이 별로 없다

며, 이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송관장의 희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도서관을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 장애인신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후학들에게 사회복지를 심어주고 명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으로써 앞은 보이지 않지만 마주하고 있는 동안 어색함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에 필자는 놀라웠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있는 건물은 정말 여러 사람의 도움과 관심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라며, 여기 까지 올 수 있었고 공간을 무료로 해 주셔서 도서관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최진호 도의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 김형길 교수님 외 모든 사회복지 교수님의 훌륭한 지도로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송경태 관장과의 인터뷰는 오랜 시간 여운이 남을 것 같고, 앞으로 사회복지 길을 걸어가 는 시간동안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 '청찬 사회복지사'는 편집부 사정상 3월호에 게재됩니다.